

### 환경문제와 쓰레기 관련 국민의식 분석

#### ■ 환경문제 관련 국민의식

- \_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매우 높아
- \_ ‘기후변화’ 가장 심각, ‘소비재 과대포장’도 심각
- \_ 심각성 1위, 기후변화 : 여성이 더 심각하게 생각
- \_ 심각성 2위, 소비재 과대포장 : 여성층 문제의식 압도적
- \_ 심각성 3위, 쓰레기 문제 : 여자 3040세대가 주도
- \_ 심각성 4위, 대기 오염 : 서울지역 관심 보여

#### ■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생각

- \_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부 책임성’ 높아져
- \_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정부와 기업 노력해야

#### ■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 분석

- \_ 쓰레기 분리배출, ‘언제나 잘 한다’ 66%
- \_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 ‘제재’ 보다 ‘보상’
- \_ ‘언제나 잘 한다’ 응답자, ①번 거주시 일부 태도 변화
- \_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 응답자, 상황과 무관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4월 9일(금) ~ 4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9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6\%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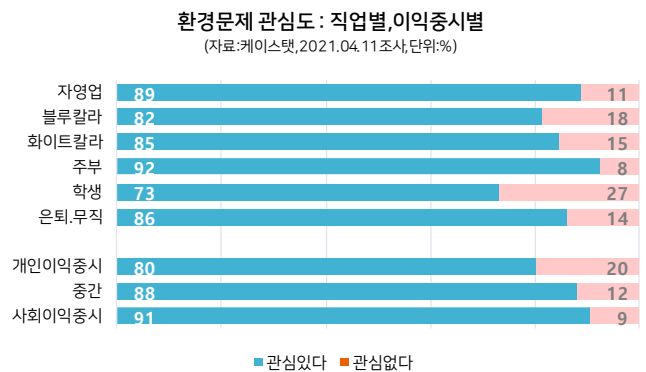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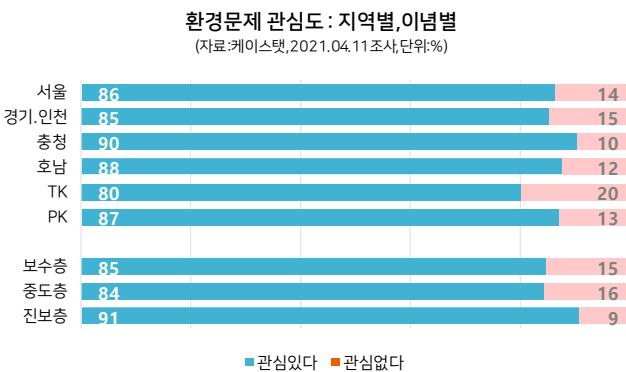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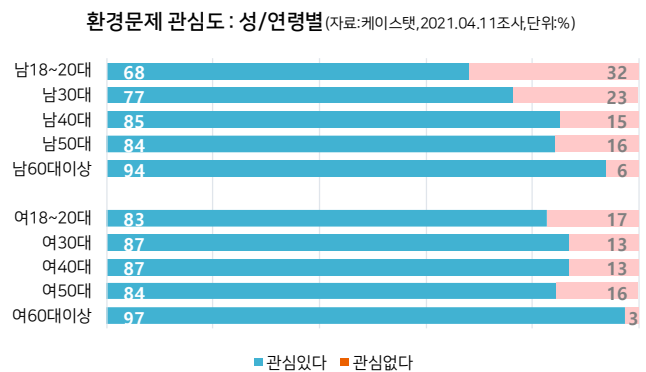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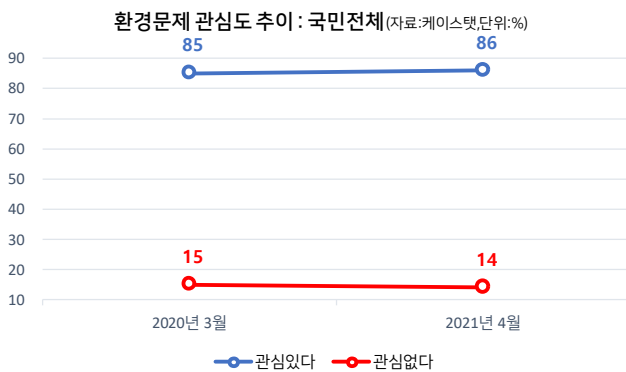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환경문제 관련 국민의식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매우 높아

-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일관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문제에 ‘관심있다’는 응답이 작년 3월 85%에서 올해 86%로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모든 계층에서 ‘관심있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관심있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40세대, 여자 60대이상 △충청권, 호남권, PK △진보층 △자영업자, 주부 △사회이익 중시층, 중간층 등임
- 상대적으로 ‘관심없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TK △학생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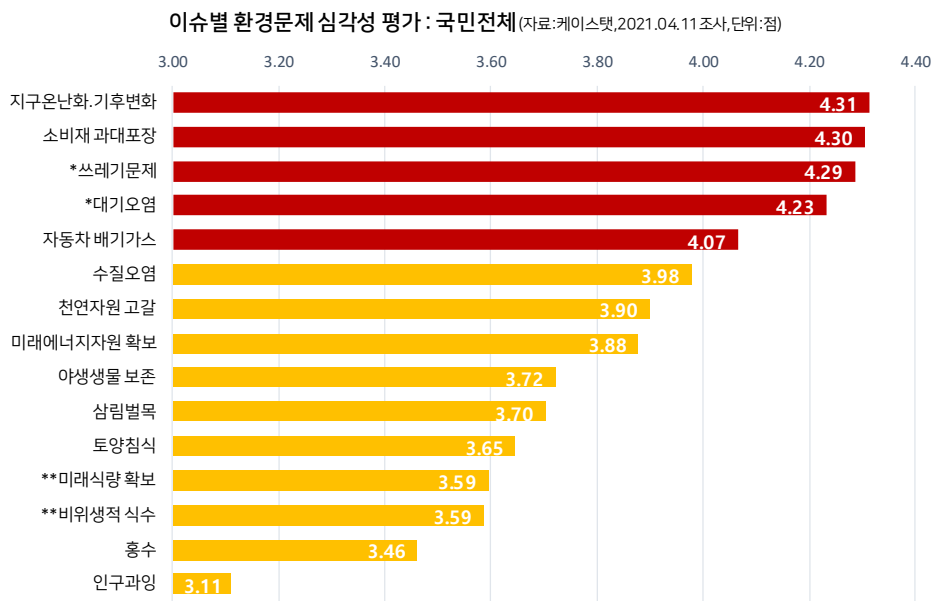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계층별 차이도 크지 않아 일상적 아젠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임
- ☑ 환경관련 아젠다·이슈 발생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지자체의 각종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러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할 때 기업입장에서는 환경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정부·지자체는 환경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기후변화' 가장 심각, '소비재 과대포장'도 심각

- 환경과 관련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은 '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함(4.31점)
  -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해 1점 '심각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은 '심각하다'는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임
- 다음은 '소비재 과대포장'(4.30점), '쓰레기문제'(4.29점), '대기오염'(4.23점), '자동차 배기가스'(4.07점) 순으로 나타남
  - 작년 3월 조사결과와 '심각하다'는 순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가 확고한 편임
  - 달라진 점은 '쓰레기문제'와 '대기오염'간 순위가 바뀌었고, '미래식량 확보'와 '비위생적 식수'간 순위가 바뀐 점에 그침



- 글로벌 조사에서도 '지구온난화.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쓰레기문제'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히고 있어, 한국민과 세계시민간 생각은 비슷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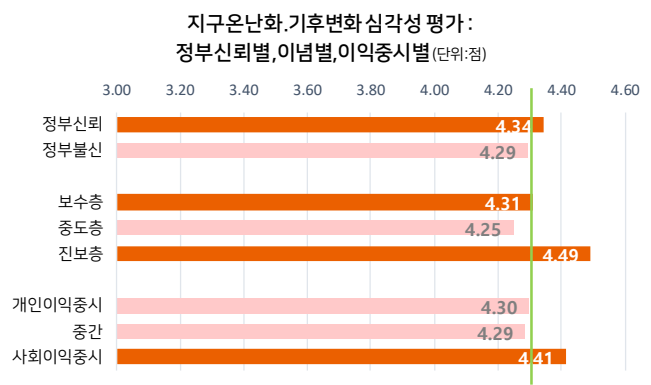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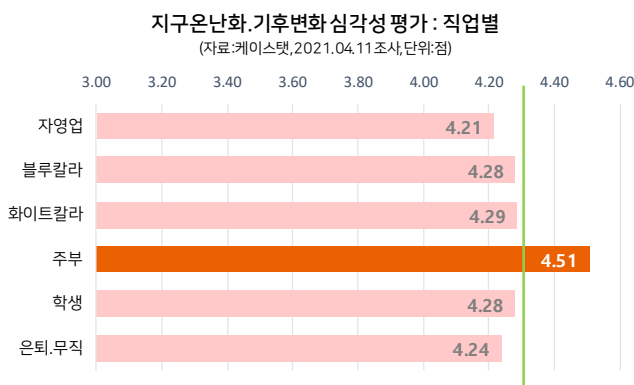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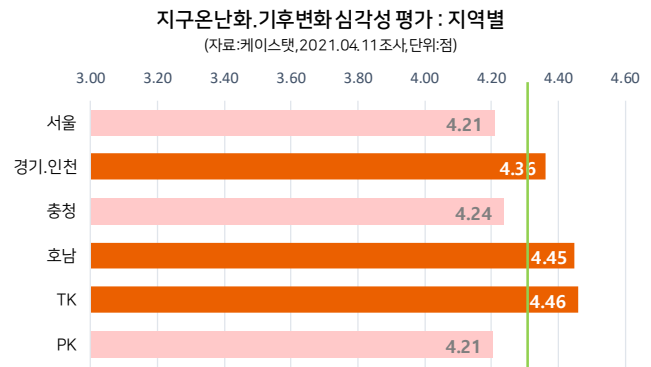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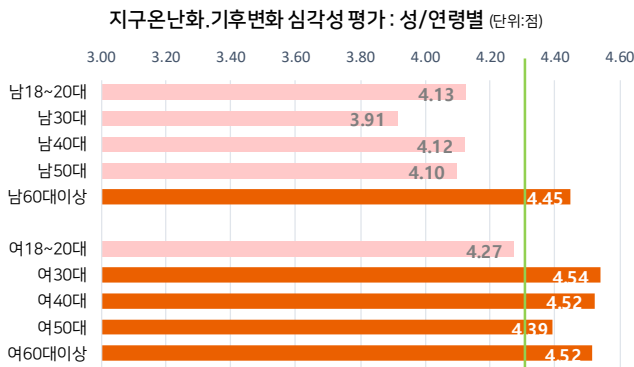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세계인 중시 환경문제는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영국·미국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쓰레기문제'를 중요 환경문제로 꼽고, 브라질 등 남미 국가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삼림벌목'과 '수질오염'을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는 등 대륙별 차이가 있음
- ☑ 우리 국민이 심각하다고 꼽고 있는 '소비재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영국과 독일에서만 중요문제라고 응답함

## □ 심각성 1위, 기후변화 : 여성이 더 심각하게 생각

- ‘심각하다’는 점수가 가장 높은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보통이다’(3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보임
  -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여자 30대는 5점 만점에 가까운 4.54점이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60세대 △경기.인천, 호남, TK △주부 △정부신뢰층 △보수층,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국민전체 평점(4.31점)이고, 옅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 점수, 짙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 점수를 의미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은 △남자 2050세대 △여자 18~20대 △서울, 충청권,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정부불신층 △중도층 △개인이익중시층, 중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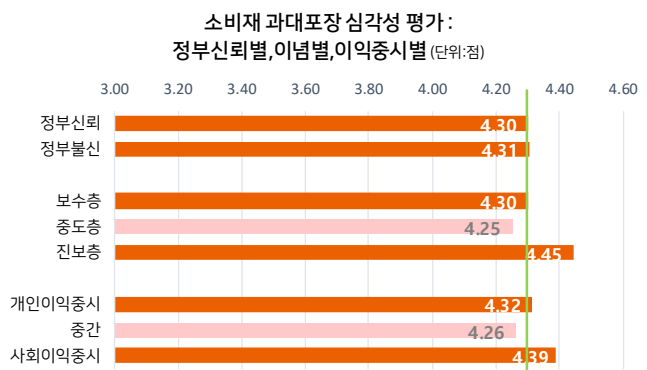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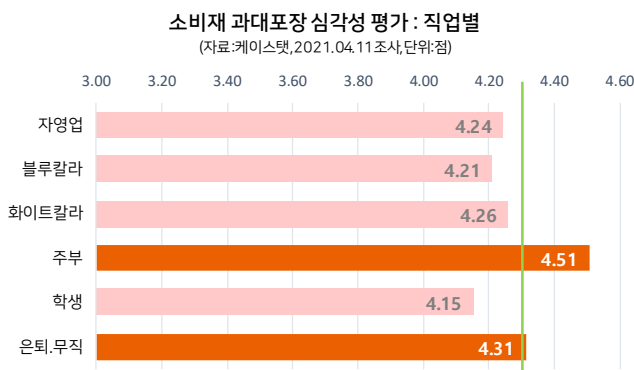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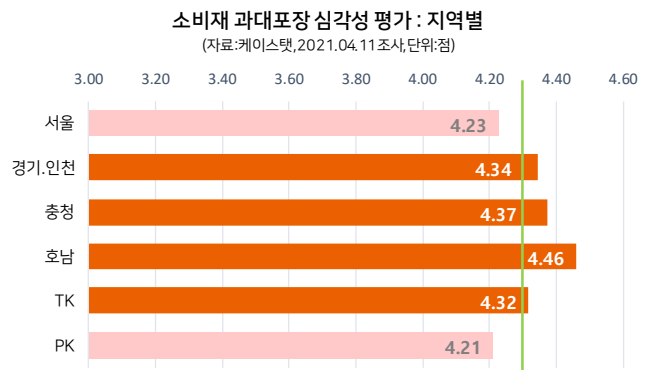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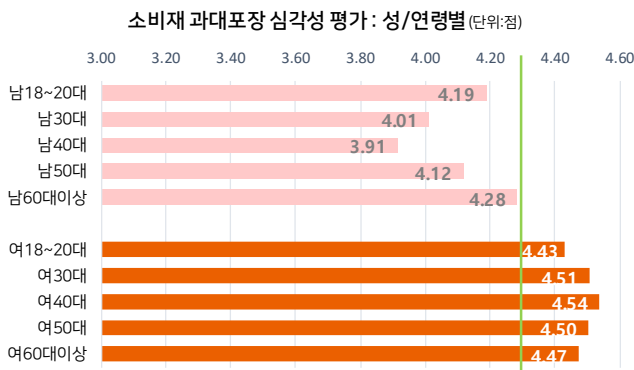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지구온난화.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데는 국민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올해 서울의 벚꽃은 3월 24일 개화해 1922년 관측 이래 가장 빨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3월 평균 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8.9도로 기록함
  - 또한 지난 2020년에는 기록적인 긴 장마를 겪었고, 2018년에는 폭염에 시달린 바 있음
- ☑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민적 인식과 거리가 먼 상황임
  - 글로벌 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의 세계 주요 61개국에 대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3위이고 대응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받음
- ☑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 심각성 2위, 소비재 과대포장 : 여성층 문제의식 압도적

- ‘지구온난화.기후변화’(국민전체 평점 4.31점)에 근소하게 뒤져 2위를 기록한 ‘소비재 과대포장’(4.30점)에 대한 계층별 평점 역시 모든 계층에서 ‘보통이다’(3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심각하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음
- 기후변화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여성층의 문제의식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냄
  -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여자 40대이고(4.54점), 가장 낮은 점수는 남자 40대임(3.91점)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여자 전 연령층 △경기.인천, 충청권, 호남, TK △주부, 은퇴.무직자 △정부신뢰층, 정부불신층 △보수층, 진보층 △개인이익중시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국민전체 평점(4.30점)이고, 옅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 점수, 짙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 점수를 의미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은 △남자 전 연령층 △서울,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중도층 △이익중시 중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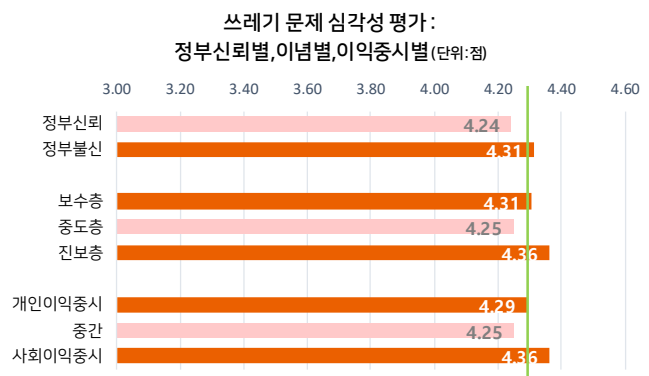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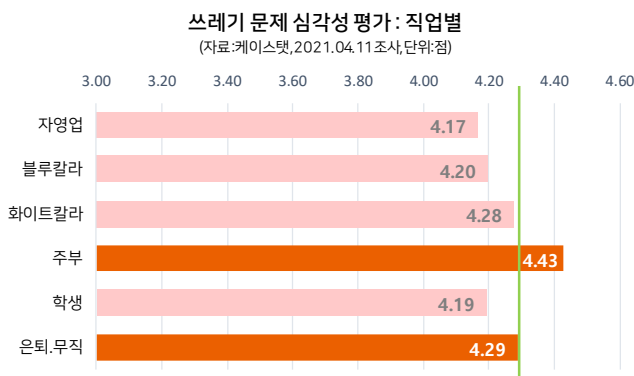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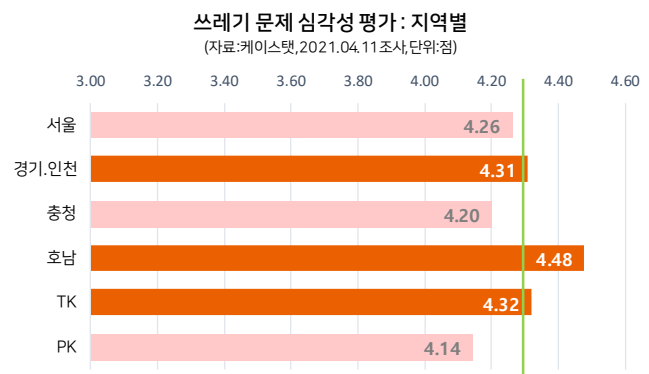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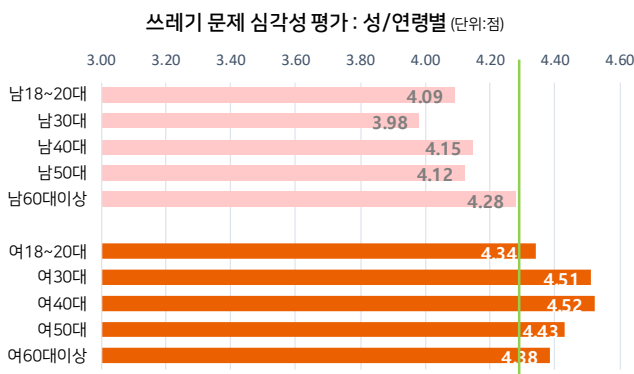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기후변화와 더불어 소비재 과대포장 역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라는 공통점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 또한 환경문제의 경우 남성층에 비해 여성층이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강함
  - : 남성층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층의 심각성은 남성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음
  - : 이는 여성층이 생활속 문제, 일상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환경정책 입안 및 추진시 남성층의 정책이해도 제고와 참여 방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 심각성 3위, 쓰레기 문제 : 여자 3040세대가 주도

- ‘쓰레기 문제’는 심각성 3위지만, 국민전체 평점 자체는 4.29점으로 앞서의 ‘지구온난화.기후변화’(4.31점)와 ‘소비재 과대포장’(4.30점)과 별 차이가 없음
  - 사실상 같은 수준의 심각성에 있다고 봐도 무방함
- 쓰레기 문제 역시 여성층의 문제의식이 강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40세대의 문제의식이 뚜렷함
  -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여자 40대이고(4.52점), 가장 낮은 점수는 남자 30대임(3.98점)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여자 전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 TK △주부, 은퇴.무직자 △정부 불신층 △보수층, 진보층 △개인이익중시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국민전체 평점(4.29점)이고, 옅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 점수, 짙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 점수를 의미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은 △남자 전 연령층 △서울, 충청, PK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정부신뢰층 △중도층 △이익중시 중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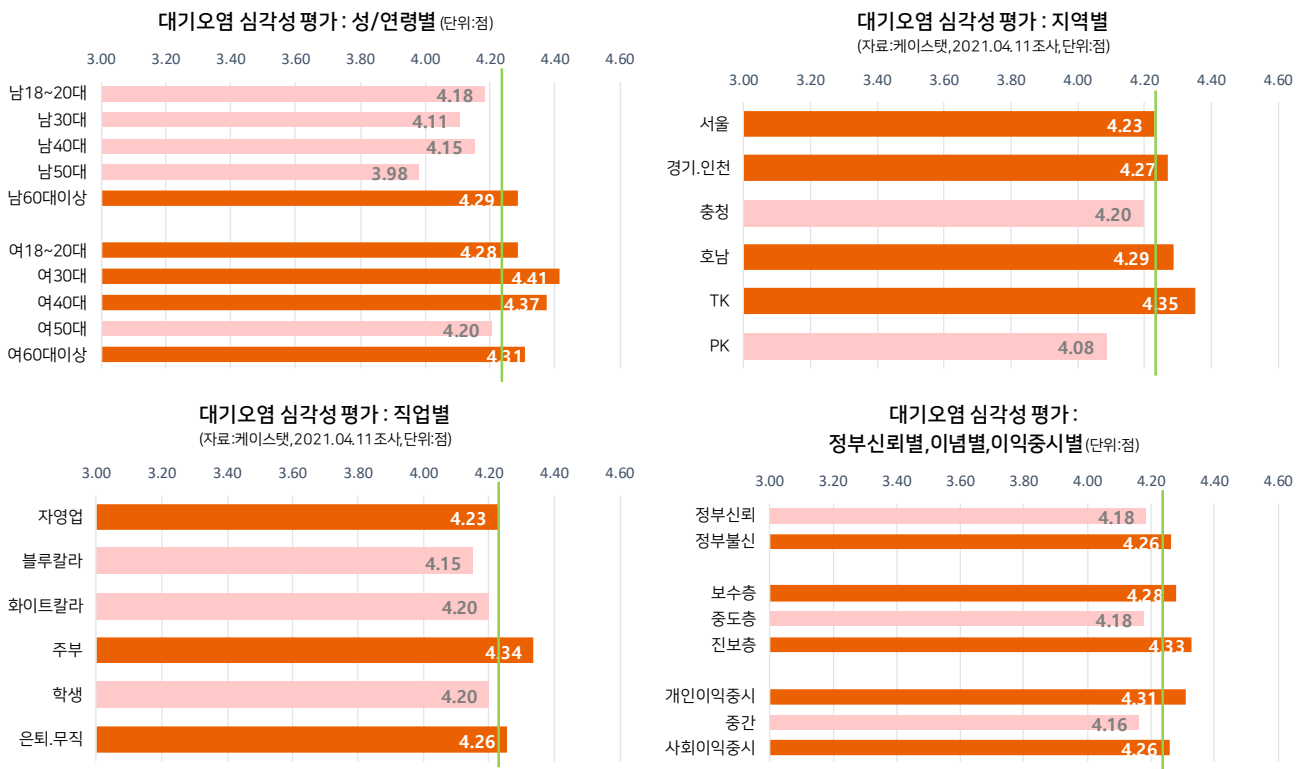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적으로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주목되는 점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념을 초월해 있다는 점으로,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국민평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지역적으로도 호남과 TK지역 둘 다 국민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
  - : 앞서의 지구온난화.기후변화와 소비재 과대포장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 국민적인 높은 관심과 이념을 떠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문제가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는, 정치권 및 정부가 환경문제를 대함에 있어 경제적 충격(기업의 비용확대 등)을 우려하는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심각성 4위, 대기 오염 : 서울지역 관심 보여

- 환경문제 심각성 4위를 기록한 ‘대기 오염’의 국민전체 평점은 4.23점으로, 국민 전체적인 문제의식이 뚜렷한 이슈임
  - 2020년에는 ‘대기 오염’이 3위이고, ‘쓰레기 문제’가 4위였음
-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도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여자 30대이고(4.41점), 가장 낮은 점수는 남자 50대임(3.98점)
-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4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경기.인천, 호남, TK △자영업, 주부, 은퇴.무직자 △정부불신층 △보수층, 진보층 △개인이익중시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국민전체 평점(4.23점)이고, 옅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 점수, 짙은 주황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 점수를 의미함
-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계층은 △남자 2050세대 △여자 50대 △충청권, PK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정부신뢰층 △중도층 △이익중시 중간층 등임



### Kstat Point

- ☑ 서울지역의 경우, 앞서의 환경문제에서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평점과 같은 점수를 기록함
  - :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이 심하고,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겹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는 지역적 특성의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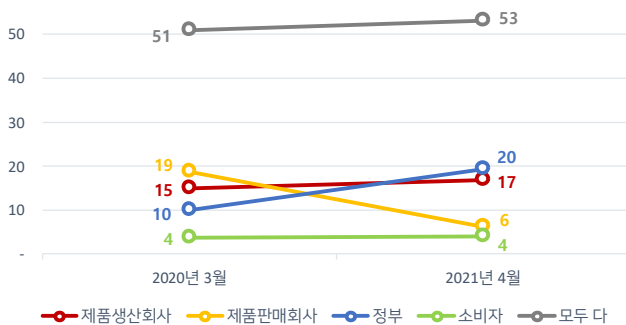


##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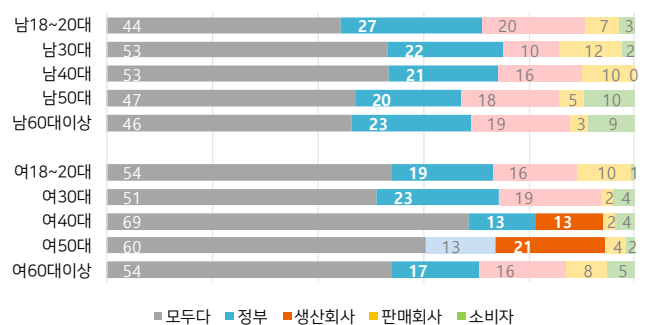
###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부 책임성' 높아져

- 우리사회에 여전히 플라스틱 포장, 비닐 봉투 및 기타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물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사회구성원 모두에 있다고 생각함
  -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생각하면 먼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다음으로 '마트 등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으며, 이 과정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있음
- 2020년 3월에는 '모두 다'라는 응답이 51%였고, 올해에는 소폭 증가한 53%를 기록함
  - 작년에 2위였던 '제품 판매회사'는 올해 4위로 하락하고, '정부'는 작년 4위에서 올해 2위로 상승함
- '모두 다' 다음으로 높은 책임성이 지목된 주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정부'가 많이 지목됨
  - '생산회사'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계층은 △TK △진보층 △여자 4050세대 △은퇴.무직자 등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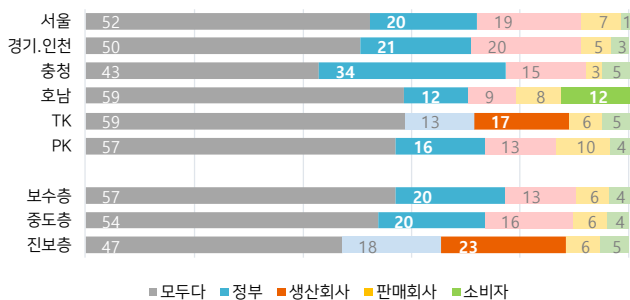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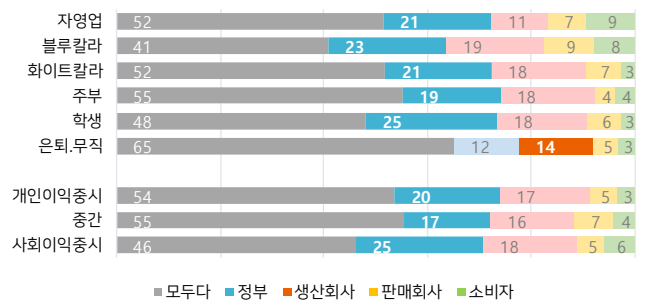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책임성 평가: 직업별,정부신뢰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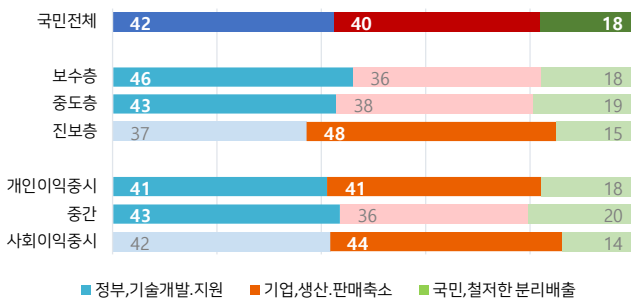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정부는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분리배출을 더욱 독려하고 있음 : 국민 여론을 볼 때 '모두 다' 책임이 있기에 이러한 분리배출 강화 정책이 올바른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여론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소비자'의 책임은 4%에 불과하고 정부와 생산 및 판매회사 책임성이 높음
- ☑ 플라스틱 쓰레기의 최종 단계에서의 분리배출 보다 생산·판매단계에서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임 :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산 및 판매단계에서의 감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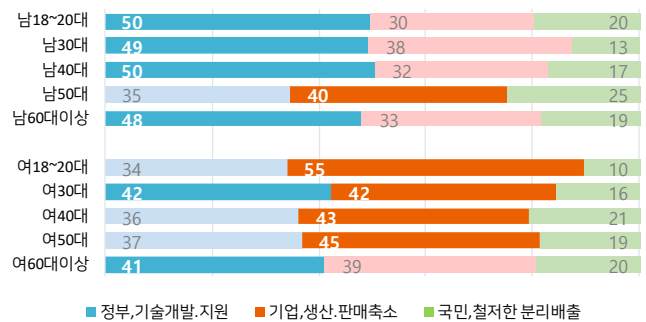
## □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정부와 기업 노력해야

-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 지원 확대’가 42%로 가장 응답이 높았고, 근소한 차이로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축소’가 뒤를 이음(40%)
  - 이에 비해 ‘국민들의 철저한 쓰레기 분리 배출’은 18%에 그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정부 노력’과 ‘기업 노력’이 맞서는 양상이고, ‘국민 노력’은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먼저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 지원 확대’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이익중시 중간층 △남자 204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서울, 충청, 호남, PK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축소’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50대 △여자 18~20대, 여자 4050세대 △TK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 ‘정부 노력’과 ‘기업 노력’이 동일한 수치를 보인 계층은 △개인이익중시층 △여자 30대 △경기.인천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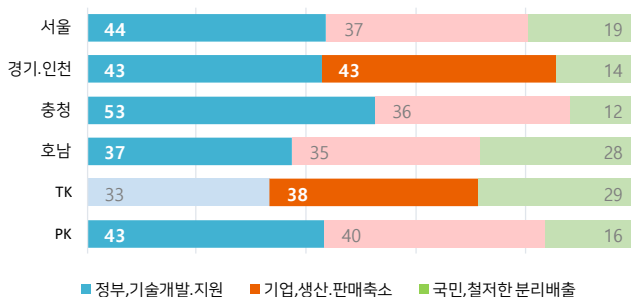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방법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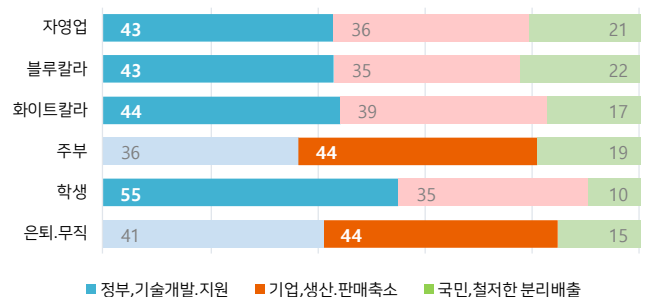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방법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방법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방법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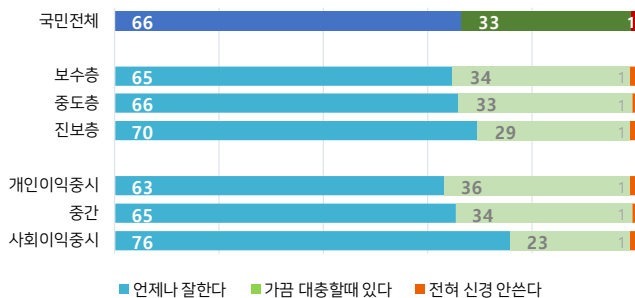
- ☑ 국민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방법은 선제적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 축소가 필요하고(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필요), 쓰레기 발생 이후에는 정부의 재활용 기술 개발·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 국민들이 아무리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도,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으로 읽힘 : 정부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분리배출 중심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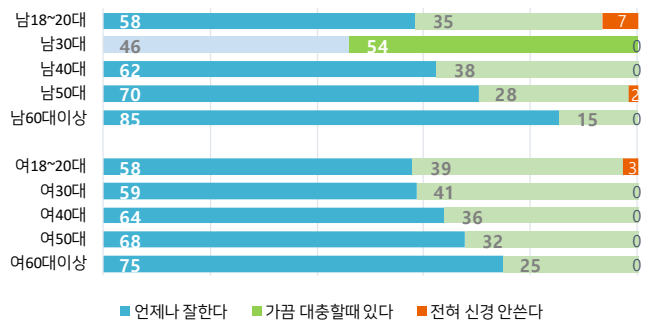
### 쓰레기 분리배출, '언제나 잘 한다' 66%

- 평소 쓰레기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잘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됨
  - '언제나 잘 한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 33%, '전혀 신경 안쓴다' 1%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봐도 '언제나 잘 한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충청권, PK △자영업, 학생 등임
-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30세대 △서울, 호남 △블루칼라 등임
- '전혀 신경 안쓴다'는 응답은 거의 없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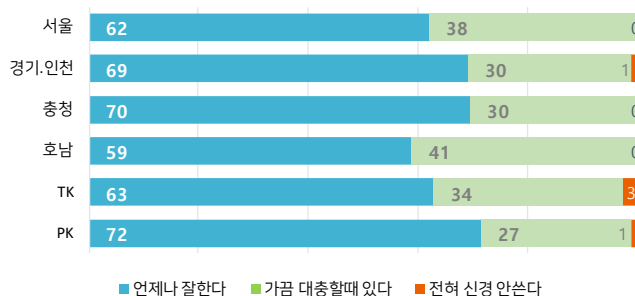
분리배출 실천 여부: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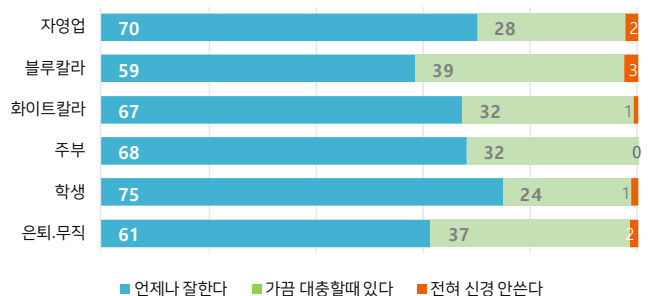
분리배출 실천 여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분리배출 실천 여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분리배출 실천 여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 Kstat Point

- ☑ 쓰레기 분리배출은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 있음
-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당위적인 응답을 최소화하고자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는 보기를 제시함
  - :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99%는 분리배출에 신경쓰지만 '언제나 잘 하는 사람'은 66% 수준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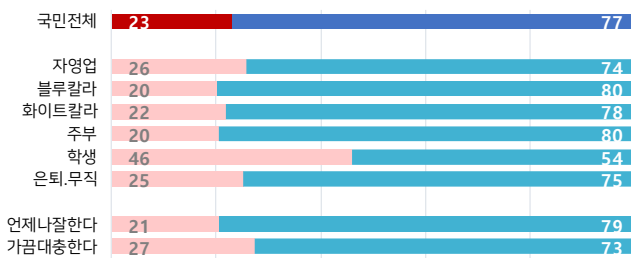
## □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 '제재' 보다 '보상'

-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재'와 '보상'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제재' 보다 '보상'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두 지자체 사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는데 어느 지자체의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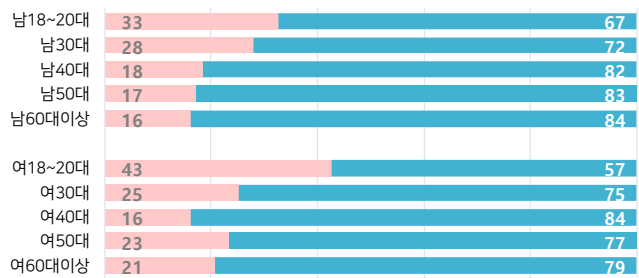


- 조사결과 ①번 지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3%에 그치고 ②번 지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77%로 높게 나옴
- 모든 계층에서 ②번 지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블루칼라, 주부 △분리배출, 언제나 잘 한다 △남자 4060세대 △여자 4060세대 등임
- ①번 지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학생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등임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 방안 : 국민전체, 직업별, 분리배출 실천여부별 (자료:케이스탯, 2021.04.11 조사, 단위:%)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 방안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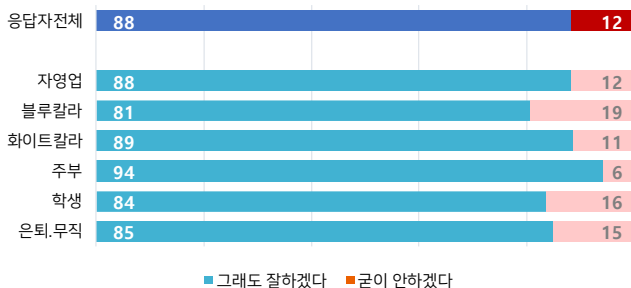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보기로 제시한 지자체 사례는 실제 사례로, 두 지자체 모두 정책목표는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로 동일함
  - ☑ 그러나 ①번 지자체는 참여율 제고 방법으로 '제재'를 선택했고, ②번은 '보상'을 선택한 차이가 있음
  - ☑ 실제로 어느 지자체가 성공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조사결과만 볼 때 '제재' 보다는 '보상'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남
  - ☑ 다만, 주목되는 지점은 남녀 18~20대 의견으로, 이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높음
    - : 이는, 이들 세대의 경우 일반국민 및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코로나19 사태 1년을 겪으면서 이들은 '일반국민'에 대한 생각이 '나빠졌다'고 응답함(국민전체 응답은 '좋아졌다')
-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4호 『코로나19 사태 1년 평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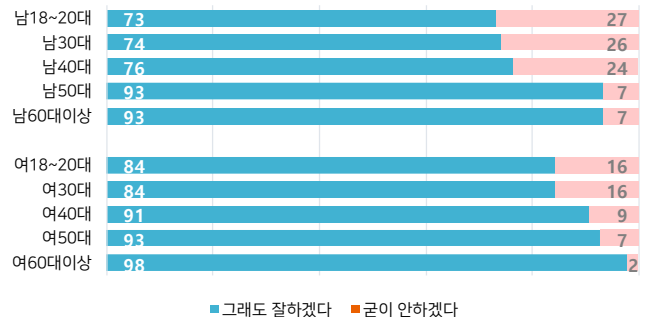
## □ '언제나 잘 한다' 응답자, ①번 거주지 일부 태도 변화

- 앞서 '쓰레기 분리배출' 질문에 '언제나 잘 한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①번 지자체(분리배출을 잘 안하는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②번 지자체(분리배출에 열심인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각각의 태도 변화를 질문한 결과 ①번 지자체에 거주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됨
- 먼저 “만약 선생님이 위 ②번 지자체에 살고, 동네 전체가 분리 배출에 열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한 결과 ‘더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97%이고, ‘다들 열심히니 가끔은 대충하겠다’는 응답은 3%에 그침
  - 모든 계층에서 ‘더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여자 18~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다음으로 “만약 선생님이 위 ①번 지자체에 살고, 선생님 쓰레기를 포함해 동네 쓰레기 전체가 수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 ‘그래도 분리배출을 잘 하겠다’는 응답이 88%이고, ‘굳이 분리배출을 안하겠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굳이 분리배출을 안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와 여자 2030세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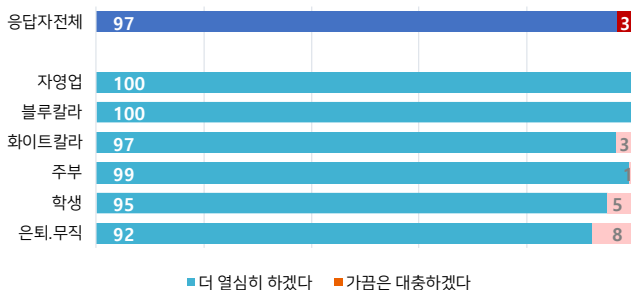
[언제나 잘한다 응답자만] ①번 지자체 거주시 의견: 응답자전체,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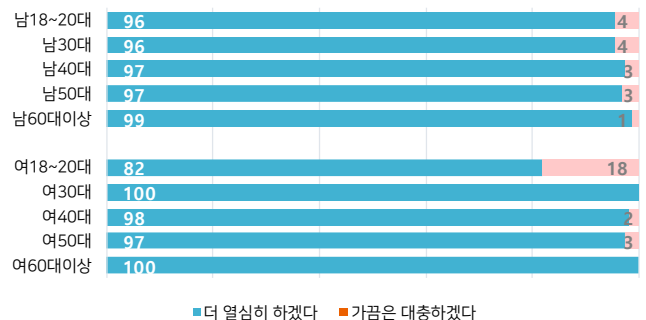
[언제나 잘한다 응답자만] ①번 지자체 거주시:성/연령별(단위:%)



[언제나 잘한다 응답자만] ②번 지자체 거주시 의견: 응답자전체,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 단위:%)



[언제나 잘한다 응답자만] ②번 지자체 거주시:성/연령별(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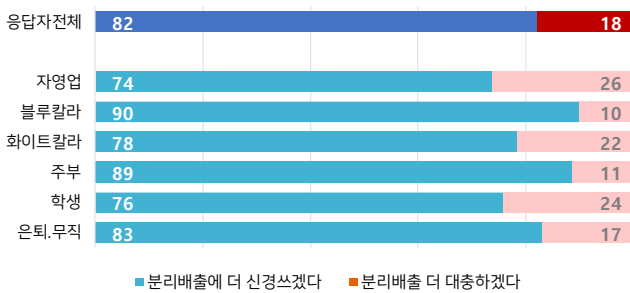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분리배출을 '언제나 잘 한다'는 사람이 분리배출에 열심인 지자체(②번)에 거주할 경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3%만 달라짐)
- ☑ 하지만 이들이 분리배출을 잘 안하는 지자체(①번)에 거주할 경우 태도가 바뀌는 사람, 즉 '굳이 분리배출을 안하겠다'로 바뀌는 사람이 12% 수준으로 조사됨
- ☑ 즉, 사회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면' 같이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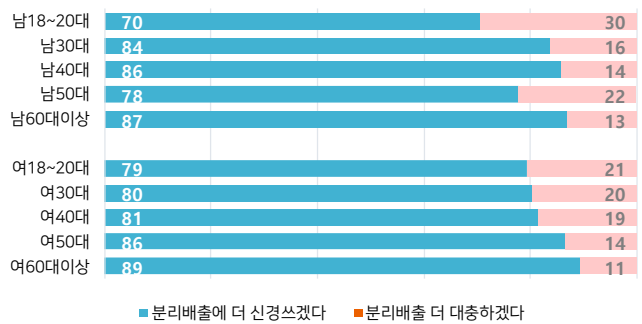
## □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 응답자, 상황과 무관

- '쓰레기 분리배출' 질문에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①번 지자체(분리배출을 잘 안하는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②번 지자체(분리배출에 열심인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각각의 태도 변화를 질문한 결과 어느 지자체에 있던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응답함
- “만약 선생님이 위 ②번 지자체에 살고, 동네 전체가 분리 배출에 열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한 결과 ‘좀 더 신경써서 분리배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81%이고, ‘여전히 지금처럼 대충 할 때도 있을것 같다’는 응답은 19%로 조사됨
- 다음으로 “만약 선생님이 위 ①번 지자체에 살고, 선생님 쓰레기를 포함해 동네 쓰레기 전체가 수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 ‘분리배출에 더 신경쓰겠다’는 응답이 82%이고, ‘분리배출을 더 대충하겠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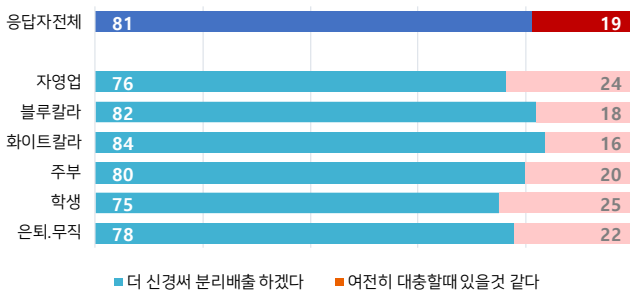
[가끔 대충한다 응답자만] ①번 지자체 거주시 의견 : 응답자전체,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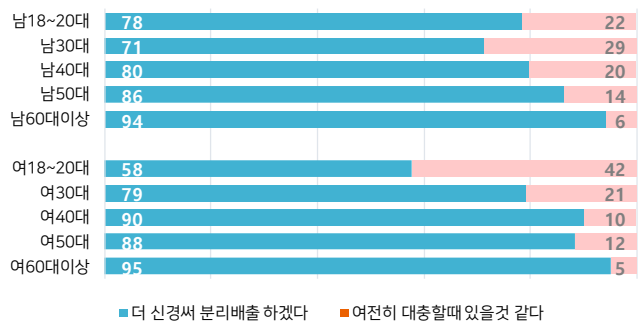
[가끔 대충한다 응답자만] ①번 지자체 거주시:성/연령별(단위:%)



[가끔 대충한다 응답자만] ②번 지자체 거주시 의견 : 응답자전체,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 조사,단위:%)



[가끔 대충한다 응답자만] ②번 지자체 거주시:성/연령별(단위:%)



### Kstat Point

- ☑ 분리배출을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는 사람은 분리배출을 잘 안하는 지자체(①번)에 거주하든, 열심히 하는 지자체(②번)에 거주하든 동일하게 '이전 보다 분리배출을 잘 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함  
: 이는 이들이 '가끔 대충 할 때도 있다'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 이를 재차 환기할 경우(상황변화 제시가 '환기'의 기제가 됨) 태도를 교정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임
- ☑ 앞서의 '언제나 열심히 잘 한다' 응답자의 태도변화와 종합할 때 사회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할 때 태도변화가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어길 때 같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일부 발생함  
: 이에 비해 규칙을 때때로 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무관하게 계속 때때로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보임
- ☑ 우리사회의 규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 준수자'에 주목하고, 이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구성원들이 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회 조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26호] 발간 안내

26호는 『사회적 보상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